

LG화학, 미국과 2차전지 특허 공유

미국 국책연구소 ANL과 양극재 특허 공유 ... EV 특허 분쟁 사전예방

LG화학이 미국의 국책연구소와 2차전지 특허를 공유한다.

LG화학(대표 김반석)은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책연구소인 ANL(아르곤국립연구소)과 2차전지의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양극재 관련특허를 공유키로 했다.

11월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양극재 관련 원천기술 특허를 보유한 ANL과 미국 내 특허를 공유키로 하는 계약을 최근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LG화학이 GM의 <시보레 볼트> 등 자사의 중대형 2차 전지가 장착되는 전기자동차(EV)의 미국 출시가 임박함에 따라 특허 침해를 놓고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은 2차전지의 4대 핵심소재 가운데 음극재를 제외하고 분리막, 양극재, 전해질을 자체 생산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1/19>